

은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바이오 메이커



김희성 | 김포 고촌초등학교 6학년

우연히 초등학교를 지나다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았다. 한참을 보고 있으니 아이들이 와서 말을 걸었다.

“아저씨, 왜 마스크를 하고 계세요?”

“봄에는 황사가 심하잖아.”

봄 황사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가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둘러보니 마스크를 한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

“황사요?”

“하늘 완전 파란데요?”

습관처럼 마스크를 쓴 내 모습이 아이들 눈에 이상하게 보인 것 같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마스크라니 ‘내가 과학자 맞나?’ 하는 생각에 우습기도 했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는 마스크가 일상이었는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내 학교생활은 답답하게 늘 마스크를 써야만 했고, 친구들과 대화도 운동도 금지였다. 온라인수업을 통해 선생님, 친구들과 화상으로 인사를 해야만 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마스크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맑고 푸른 하늘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준 것 같아 어른으로서 과학자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개발한 ‘바이오 메이커’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바이오 에너지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간편하고 사용이 쉬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다.

20년 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비행기, 자동차의 운행이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덕분에 뜻밖에 맑은 하늘을 되찾았다. 그때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서도 어른들은 다시 찾은 맑은 하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도 그때 결심했다.

“나는 나와 가족들을 집콕하게 만들고 매일 입는 옷처럼 매일 마스크를 하게 만든 코로나19 대신 미래의 아이들에게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 맑고 푸른 하늘을 선물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될 거야.”

분리수거 방법이 간단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난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중이다. 아이들과 헤어지고 나는 푸른 하늘도로 위를 스카이카를 타고 시원하게 달리며 연구실로 가고 있다.

어릴 적 자주 보던 회색빛 하늘대신 맑고 푸른 하늘도로 위를 달리다보면 내가 꼭 하얀 뭉게구름이 되어 떠다니는 것 같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계속 미소 지으며 하늘도로를 드라이브하고, 지금처럼 아이들이 신나게 밖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 연구해야지!

10년 후 내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다.

“아빠, 마스크가 뭐예요?”